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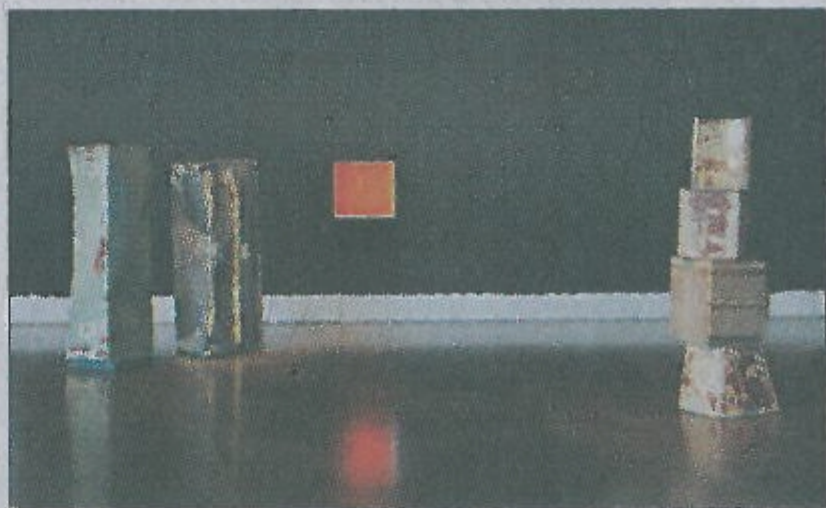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생이 그린 신작 등으로 개인전

### 김홍석, 또 한번 관객에 질문

김홍석(50)은 비평가, 관객은 물론 동료 미술가들에게도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골치아픈 질문을 던지는 작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해 불편하고 쫓겨나게 만든다.

작가의 회화 'MOP-131014걸레질-131014'를 보자. 이 작품은 김 작가가 캔버스에 색칠을 한 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 캔버스 위의 색을 직접 손걸레질로 닦게 했다. 걸레질이 1~2시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캔버스에 만들어지면 노동자에게 즉각 걸레질을 멈추게 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것이다. 널찍한 전시장벽에는 펜이나 붓을 이용해 끊임없이 선을 긋거나 색칠을 하게 했다. 전시장벽에도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작가의 소유물이 되는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시급을 주고 작업을 시킨 미술가에게 작가로서의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일용직 노동자가 걸레질을 한 것일 뿐인데 전시장에 내걸려 미술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용직 노동자가 처음부터 색칠을 하고 닦아내면 작품이 아닌가,



김홍석 작가의 작품전시장 일부.

국제갤러리 제공

그림 작품은 무엇인가...

김 작가는 현대미술의 생산구조와 유통, 예술의 가치,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인식에 거침없이 따지를 건다. 작업과정과 작품을 통해 철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유진상 평론가(계원예술대)는 “작가는 미술행위와 작품, 노동, 작가와 작품 참여자·관객 사이의 소통, 윤리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작가의 개인전 'BLUE HOURS' (서울 사간동 국제갤러리)에선 날카로운 비평적 관점에서 작업을 하는 그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과의 작업 결과물인 회화, 설치, 조각 등이 관객에게 예외없이 질문을 던진다. 5월11일까지.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